



50만명 기도운동

50만
기도운동
일지

PRAYING OUR WAY TO PENTECOST

판권© 2022 파운드리출판사
The Foundry Publishing
PO Box 419527
Kansas City, MO 64141

판권 소유.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발행인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복제하거나 검색 시스템에 저장하거나 전자, 복사, 녹음과 같은 형태나 수단으로 전송할 수 없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인쇄된 논평문의 짧은 인용입니다.

내지 디자인: 샤론 페이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구절은 개역개정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터넷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는 출판 당시의 정확한 정보이며 자료로서 제공됩니다. 파운드리출판사는 이들의 내용 또는 영속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50만
기도운동
일지

PRAYING OUR WAY TO PENTECOST

서문

초창기부터 우리 나사렛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왔습니다. 나사렛 교회를 탄생시킨 성결운동은 기도운동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사람들이 변화된 것은 의도적으로 기도하며 보낸 시간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소망이 절실한 세상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면서, 그들은 서로 천국 생활에 참여하도록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닮는 제자 운동이 되었고, 그들이 성경적 거룩함을 설교하고 삶의 한계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사역하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나사렛 교회는 이제 100년을 지나 두번째 100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사렛사람들이 초창기 나사렛으로부터는 시간과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지만, 우리는 초창기 기도의 시간들과 다시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해야 하는 일과 사역을 인도받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사역을 위해 주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초월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영적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기도일지를 들고 성경본문에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계시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략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도를 통해 신성한 본성을 나누는 참여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는 지금 갱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함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영적 갱신은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되며 그때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와 손을 맞잡고 공동체 차원에서 영적 갱신을 경험하는 것은 마음의 새로움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새로움과 영적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쇄신의 결과가 미국·캐나다 지역에 있어서 교회 사역의 부활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독교는 현재 새롭게 일어나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거나 영향력이 현저히 없어지게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합니다. 앞에 놓인 부흥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인격과 본성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부흥이라면 어떨까요? 이것은 오직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가능합니다.

우리와 함께 이 영적인 여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시간을 내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의 미래로 인도하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증인이 이 세상에 많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칼라 D. 선버그, 철학박사, 나사렛교회국제총회감독

제1일

2022년 5월 1일(주일)



마태복음 6: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묵상

오늘의 구절은 산상수훈(마 5-7장)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산상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 헌금에 대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할 때에”라는 단어로 이러한 중요한 각각의 관행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그는 “만일 네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헌금을 하려면” 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기도할 때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함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하루 시간을 다른 작업들로 쉽게 채우게 됩니다. 기도가 “~할 때에”가 아니라 “만일~하려면”이 될 때, 하나님과 이웃과 우리 자신과 주변 세상과 단절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그러한 연결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도록 합시다.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나아올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올리비아 멧칼프 (북뉴욕주 연회 감독)

제 2 일

2022년 5월 2일(월)

마태복음 6:9, 12, 14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말씀묵상

다른 사람들의 죄, 그 죄를 드러내는 것은 우리 문화의 속성입니다. 우리의 대화는 뒤로 갈수록 주로 누군가의 죄에 대한 뒷담화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마 7:5).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된 요즘, 나는 내 영적 시력을 검사하고 내 눈의 백내장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비판적 평가는 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검사할 때 누그러집니다.

내 친구 다나 월링(Dana Walling)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비판적 마음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비판적인 영은 죄이다. 그리고 둘 사이의 거리는 짧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나의 가혹한 정죄가 결코 열수 없는 길을 내 마음 속 욕구에 대한 나의 솔직한 고백이 열어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오 주님, 우리 주변의 문화 패턴에 빠져 거칠고 비판적이 되기 쉽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희망과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리 캐스터 (워싱턴퍼시픽 연회 감독)

제3일

2022년 5월 3일(화)

마태복음 7:7-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말씀묵상

저의 네 자녀는 제 아내인 록산나(Roxanna)와 저에게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랐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 요청할 수 있도록 허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자랐습니다. 물론, 그들이 요청한 것 중 일부는 받아 주기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요청한 것을 항상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항상 얻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뜻에 따라 항상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구하는 것을 항상 얻지는 못하지만 필요한 것은 얻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는 것을 항상 믿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음을 알고 저희가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열려야 할 문을
열어 주시고 닫혀야 할 문을 닫아주시고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댄 콜 (네브라스카 연회 감독)

제 4 일

2022년 5월 4일(수)



마태복음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말씀묵상

“이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니라”(마 4:1).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와 금식이라는 영적 훈련을 하셨으며, 이는 그가 유혹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끊임없이 교통하시는 수단이었습니다.

여러 사건들 가운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기도하도록 부르셨으며,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26:41)고 권고하셨습니다.

기도는 쉬운 영적 헌신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 여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 그리고 교회의 사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기도가 어려운 일임을 배웁니다.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41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기도와 금식의 영적인 삶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누가복음 11:1-4).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베르트 호지슨 (다문화사역 디렉터)

제 5 일

2022년 5월 5일(목)



마가복음 11:25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말씀묵상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의 특권을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들을 용서할 책임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눅 11:4에 연관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마 6:14-15에서, 예수님께서서 일곱 가지 간구로 기도의 기본을 가르치신 후, 추가로 강조하신 유일한 간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나사렛교단의 신약 학자인 로저 한(Roger Hahn)은 “14-15절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도 상실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감옥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로 향하는 문 앞에 선 지금, 고통, 분노, 괴로움을 뒤로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감옥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놓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해 품고 있는 고통, 분노, 비통함을 놓아버리는 것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를 채워 주소서. 저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 저에게 깊은 상처를 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샘 바셀 (메트로뉴욕 연회 감독)

제 6 일

2022년 5월 6일(금)



창세기 1:3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묵상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첫 만남은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행동은 그분의 음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29절에서 9번에 걸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구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와 그 안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이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모두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동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씀에는 우주에 은하수를 창조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생활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기도는 경청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방 안에서의 큰 소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삼상 3:10)라고 말한 것과 같이 기도를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소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통해 우리에게 신선한 생명을 불어 넣으십시오.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캇 레이니 (국제나사렛제자사역국 디렉터)

제7일

2022년 5월 7일(토)



누가복음 6: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묵상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 생활의 훌륭한 모범이십니다. 자신의 기도 생활의 다양한 실천을 탐색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적용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구절은 그 실천들 중 하나로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아버지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강조합니다(13절 참조). 실제로 많은 복음서 필자들은 예수님께서 종종 외딴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언급합니다.

결정을 내리는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버지와와의 관계 형성, 조용한 돌아봄의 시간, 다가오는 도전을 이기기 위한 능력얻음, 그리고 열정과 목표의 갱신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기도 여정에서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여 아버지와와의 더 깊은 교제를 위한 큰 격려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보호하심, 인도하심, 계시의 영역에 더 잘 조화롭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와의 고독의 시간은 이 여행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줍니다.

오늘의 기도

주 예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추수밭에서 주님을 밟아 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영으로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켄 스탠포드 (뉴잉글랜드 연회 감독)

제 8 일

2022년 5월 8일(주일)

누가복음 10:2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말씀묵상

농부들은 이 비유를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 샌루이스 밸리에서 감자 농사로 생계를 꾸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감자를 통에 담기 위해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수확에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본문에서 “일하다”와 “추수하다”라는 단어를 끌리지만, 우리 자신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마도 “보내 주소서”일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유일한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의 일은 기도로 구하고 순종적으로 듣는 것으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추수하는 일은 우리 주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 매일 기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 살배기 손녀는 최근 10시 2분(누가복음 10:2)으로 설정된 내 전화 알람이 울렸을 때 내 무릎 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그녀는 “기도할 시간이에요, 할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추수를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주님,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목회자들과 교회 개척자들과 선교사들과 위대한 지도자들을 보내주소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늘 저를 추수밭으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누군가에게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나타낼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짐 본드 (캔사스 연회 감독)

제9일

2022년 5월 9일(월)

누가복음 18: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말씀묵상

어린이 담당목사로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은 메리 라이스 홉킨스(Mary Rice Hopkins)와 개리 홉킨스(Gary Hopkins)의 "기도(Pray)"였습니다. "기도"는 다니엘, 요나, 아브라함, 사라, 예수님이 어떻게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했는지 알려줍니다. 후렴은 우리가 친구가 필요하거나 곤경에 처하거나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할 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답은 항상 기도입니다.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거듭되는 요구때문에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속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상기시키십니다(눅 18:8). 우리는 반복적인 기도로 하나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염려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서 선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같은 일에 대해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고 그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게 응답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모든 필요를 위한, 매일을 위한 답은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모든 필요와 관심을 가치있게 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한 주님의 뜻에 따라 신실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드리는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삶에 강조되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버질 아스크랜 (콜로라도 연회 감독)

제10일

2022년 5월 10일(화)

요한복음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묵상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물건 하나쯤은 잘못 놓은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역추적은 해당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마음속으로 내 행동을 되돌리고 내가 한 일을 순서대로 기억하는 것으로 역추적을 시작합니다. 물건을 어디에 두고 왔는지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각 행동과 장소를 기억해 냅니다..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모두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역추적"하거나 기억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나 지지하고 새롭게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어떻게 당신과 동행하시고 말씀하시는지 발견 (또는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대신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정 문제, 관심사 또는 상황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기억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샘 플로레스 (남캐롤리나연회 감독)

제11일

2022년 5월 11일(수)



요한복음 15: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묵상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생산적인 사역을 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이며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과 나를 돌로 삼아 견고한 터 위에 세우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소망, 믿음, 사랑의 메시지를 나누도록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돌이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아직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웃, 동료, 친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믿음을 나누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 예수님,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담대함의 영을 저에게 주소서. 주님, 저를 주님의 열매 맺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렉 가맨 (로스엔젤레스 연회 감독)

제12일

2022년 5월 12일(목)

요한복음 17: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묵상

때로는 세상이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가급적 그곳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세요"가 우리의 기도가 될 것입니다. 제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닥칠 일에 대해 꽤 무서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즉,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는 동안 여러분은 울고 슬퍼할 것이며,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할 것이다. 등등. 이 모든 것은 현명한 사람들이라면 탈출하고 싶어하는 상황처럼 들립니다. 누가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경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시는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그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시속 80마일로 달리다가 세 바퀴나 굴러 뒤집힌 밴의 승객이었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나는 내가 죽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훔날렸던 먼지가 가라앉자 나는 다치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먼지가 가라앉으면 그들이 다치지 않고 일어나오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우리를 죽이고 흠치고 멸망시키려는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소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크 베인 (전도와 교회개혁 디렉터)

제13일

2022년 5월 13일(금)



역대하 20:6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말씀묵상

본문의 시작 부분에 있는 수사학적 질문은 우리가 여느 평범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하늘 만군의 유일하신 주님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전형적인 날들을 지나는 것처럼 일상적입니다. 다른 때에는 우리가 직면하는 상황과 문제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자신의 능력과 자원을 넘어선 어떤 것을 믿고 순종하도록 도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지한 믿음, 내려놓음, 그리고 확신을 필요로 합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저는 오늘 제가 부름받은 일에 있어서 하늘의 온전한 능력이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의 권능과 능력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아버지를 영예롭게 하고, 아버지의 자녀를 축복하며,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프리 존슨 (남텍사스 연회 감독)

제14일

2022년 5월 14일(토)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묵상

이 약속이 처음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불가능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유대 밖에 나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기술이 있고 우리의 손끝에 전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벅차게 보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은 인원수, 자원 부족, 사회적 소외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순절에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행 1:14a)에 힘썼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중심으로 하나된 이 적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들의 신실함을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은 자로서 그들과 함께 헌신적인 기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세대에서 이 약속의 성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 세대를 위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오니,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얻기 위한 우리의 열정과 기도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크 린드스트롬 (북알칸사스 연회 감독)

제15일

2022년 5월 15일(주일)



사도행전 2: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묵상

오순절은 교회 안에 기도에 대한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한 곳에”(사도행전 2:1) 모였습니다. 합심 기도를 통해 그들은 강력한 하나됨과 연합을 경험했고, 그 결과 주님은 축복과 “영생”(시 133:1, 3)을 주셨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교회의 문화를 바꾸고 전염성을 갖게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총과 다른 사람들의 칭송을 가져옵니다.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깊고 연합된 기도는 모든 영적 운동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기도는 영적으로 굶주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심어집니다. “주여 기도를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눅 11:1)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오순절에 모든 교회가 바울의 기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빌 2:2,4).

오늘의 기도

주님, 우리를 오순절의 초대 교회처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요 17:23).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래리 맥케인 (시카고중부 연회 감독)

제16일

2022년 5월 16일(월)

사도행전 4:31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묵상

오순절 이후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능력을 주시고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핍박이 일어나자 신자들은 성령의 새로운 충만함을 통해 더 큰 담대함과 주님의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주님께로 향했습니다.

“담대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파레시아는 “담대함”, “개방성”, “자신감”을 의미합니다. 방해받지 않고 공개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자유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념에 관해 A부터 Z까지 담대하게 전하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음을 주목하십시오. 성령의 새로운 충만은 소망과 도움과 치유가 절실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구원케하며 화목케 하는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몸에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분열과 불법이 난무하고 엄청난 궁핍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공개적으로 나눌 수 있는 자유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 예수님, 주님처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소서.
주님의 사랑과 좋은 소식을 나누는 데 있어 자유와 담대함을 가져다
주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새로운 갈망과 당신의 영의 새로운
충만을 우리 마음에 창조해 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폴 하틀리 (알래스카 연회 감독)

제17일

2022년 5월 17일(화)

에스라 8:23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말씀묵상

오늘 본문에 금식의 원리가 나옵니다. 금식의 유익을 여러
방면에서 알아볼 수 있지만, 오늘은 금식보다는 기도의 열정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 보겠습니다. 약 5:16은 기도의 유익성을 세 가지
공식으로 나타냅니다. 나는 이 세 가지를 불의 피우는데 필요한
필수품(연료, 열, 산소)에 비유합니다. 기도의 첫 번째 필수품은 옳은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뜨거운”(KJV) 기도라고 부릅니다(이것이 연료입니다).
두 번째 필수품은 올바른 영적 온도, 즉 “열렬하게”(KJV) (열)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관계 속의 기도, 곧 “의인의
기도”(산소)입니다. 제 인생 여정의 대부분을 통해 저는 “뜨거운”
기도와 “올바른 관계”의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지만 “열렬한” 기도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이 기도의 세가지
요소 중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렬한 기도는 감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필요가 있음을 영적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필요함을 절박한 마음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가 절실히 필요함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굽주림과 목마름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각자에게 야곱의 마음, 다음과 같이 부르짖는 마음을 주옵소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댄 길모어 (북부 미시간 연회 감독)

제18일

2022년 5월 18일(수)

로마서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말씀묵상

우리는 십대 소녀를 입양한 양부모였습니다. 그녀를 입양하고 난 후에 실제적 관계 속에서 양부모라는 호칭에서 “양”이라는 용어를 제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실 입양 판결문에는 “그녀는 모든 면에서 적법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것과 동일한 자녀 및 상속인으로 간주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입양은 우리 가족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특권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입양 과정을 통해 변화됩니다. 우리는 종에서 영원한 왕국의 왕족 상속자로 신분이 변화하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는 더 큰 확신을 갖고 더 이상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영의 인도에 의지하여 매일을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되는 것은 모든 것을 포괄하고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도 입양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셨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김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기도

아빠, 아버지, 저를 아버지의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제가 아버지의 자녀임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 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티브 호프만 (프레이리 레이크 연회 감독)

제19일

2022년 5월 19일(목)

로마서 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묵상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이 놀라운 선물임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약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깊은 곳의 소리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할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도록 중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얼마나 우리에게 참된 변호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신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오늘의 기도

아버지, 성령의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때, 우리의 귀는 아버지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의 갈망에,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뜻에 맞춰지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디 이스텝 (캔사스시티 연회 감독)

제 20일

2022년 5월 20일(금)

로마서 12: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씀묵상

본문은 어려움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최선의 길로 부르십니다. 소망은 위대하지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더 위대합니다. 환난중에 살아남는 것도 위대하지만 환난 중에도 참는 것은 더 위대합니다. 간헐적인 기도는 도움이 되지만 항상 힘쓰는 기도는 더 위대합니다.

본문의 수식어들이 차이를 만듭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이 확고하고 신실한 기도로 격상된 기도가 더 좋은 열매를 거둔다고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스워드 챔버스(Oswald Chambers)는 다음과 같이 썼을 때 분명히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도란 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도가 바로 큰 일이다.”

그래서 나는 묻습니다. 극심한 고난 중에 소망이 필요할 때에 여러분의 신실한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인내와 함께 기쁨의 소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신실하게 기도하면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선호할 수 있지만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즉, 상황이 당신의 기쁨을 제한하거나 인내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낙관적인 복음은 매일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주님, 저를 선하심과 온전함과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소서. 적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어려움을 원망하거나, 나에게 가장 좋을 때에만 순종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 풀러 (버지니아 연회 감독)

제21일

2022년 5월 21일(토)



시편 115:1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므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말씀묵상

내가 15살이었을 때, 내 침실의 벽과 선반은 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트로피, 상패, 상장을 진열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소셜 미디어 창은 우리의 영광을 강조하기 위해 성취해 낸 사진이나 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무해해 보이지만 인간 중심의 영광이 축적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기적이고 제한적이며 일시적입니다.

시편 115편은 “여호와여, 우리에게 마옵소서”라는 반복적인 외침으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인간이 영광의 중심이 되는 것에 대한 깊은 저항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부패한 왕, 명예를 추구하는 유명인 또는 자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자만심까지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합니까? 오직 주님! 오직 주님만이 진정으로 사랑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희생과 종의 리더십으로 신실하게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겸손하면서도 빛나는 영광을 경외합니다! 오늘

우리는 트로피와 셀카를 내려놓고 영광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오직 한분을 경배합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의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의 영광도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을 비추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한 길을 걷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이비드 모우리 (북서 연회 감독)

제 22일

2022년 5월 22일(주일)

에베소서 3:20-21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묵상

사도 바울은 기도를 마치면서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을 옮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일을 하실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에 대해 잠시 생각해봅시오. 너무 커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백성의 충실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상상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초점을 우리 자신에게서 그에게 옮기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는 우리 교회, 교육 기관, 구제사역센터, 목회자,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엡 3:21).

오늘의 기도

오늘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요구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며 하나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목적으로 저희를 채우소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팀 크럼프 (남서 인디애나 연회 감독)

제 23일

2022년 5월 23일(월)



시편 116:1-2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말씀묵상

내 친구 테리 톨러박사(Dr. Terry Toler)가 작곡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는 “지금도 말하느니라(He Still Speaks)”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목소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므로”(시 116:1)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하였습니까?

자비를 구하는 시편 기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는 시편 기자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귀를 기울였을 때가 아니라, 시편 기자의 선함으로가 아니라 시편 기자가 자비를 위해 부르짖었을 때 들으셨습니다.

많은 번역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번역은 “그는 듣기 위해 몸을 굽혔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듣고 싶어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시편 전체를 읽으면 시편 기자는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여러 번 알려줍니다. 삶의 여러 상황에서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몸을 굽히고 계시다는 사실을 오늘 기억합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회개의 외침, 도움과 치유를 위한 우리의 간청, 경배와 감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구할 때 주님의 교회가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렉 메이슨 (북 캐롤리나 연회 감독)

제 24일

2022년 5월 24일(화)



마태복음 9:37-38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말씀묵상

모든 사람은 추수하는 것을 보고 싶어하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추수하는 것을 살짝 엿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추수하는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추수는 해마다 여러 계절에 이루어지지만 밭에서 일하려면 추수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추수하는 밭이 황량하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일꾼들을 요청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습니다.

추수하는 것이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기도로 뿌린 씨앗은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일꾼들은 현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오십만 나사렛 사람들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기 때문에 수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수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는 일은 매력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요청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단순히 요청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은 “거두는 수확물로 하루 하루를 판단하지 말고 심는 씨앗으로 판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 우리는 추수를 더하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수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주변에 일꾼을 보내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추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웬델 브라운 (북중부 오하이오 연회 감독)

제 25일

2022년 5월 25일(수)



시편 145:18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데다

말씀묵상

시편 145편은 다윗이 쓴 멋진 찬양시입니다. 첫 소절에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것은 시대의 끝까지 대대로 지속될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은 신실하시며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18절)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분에게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얼굴'을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처에 대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막연한 감정으로 기도할까요?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가 줄곧주님께 진실함으로 나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와 그가 쓴 시편 전체에서 이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동굴에 숨어 있거나 밧세바와 함께한 죄를 회개하거나 자신을 쓰러뜨리겠다고 위협하는 거인들에게 승리를 선언하거나 언제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러내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제가 다윗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가식적 행위를 버리고 주께 숨긴 것이 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진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의
공휼하심과 끝없는 자비가 나의 희망입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니 페리 (편집장)

제 26일

2022년 5월 26일(목)



디모데전서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묵상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임명된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회중들을 위한 조언을 합니다.
그 중 2장은 합당한 예배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예배로서의 기도에 대한 바울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 버리면
안 됩니다. 그는 우리의 기도에 "간구"(특정한 필요 사항에 대한
요청), "기도"(사람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감),
"중보"(그들을 대신하여 담대하게 호소함), "감사"(그들을 위한 감사를
드림)를 포함할 것을 권면합니다. .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2절) 기도하라고 특별히 권면합니다. 왜
그럴까요? 국가의 의무는 평화를 유지하고 시민을 보호하며 법과
질서를 수호하고 악을 처벌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틀(John Stott)는 "세계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세계
복음화가 더딘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지 않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 전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믿고 끈기 있게 드리는 기도로 그분을 기다리는 법을 배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간구, 기도, 중보, 감사는 모든 사람들이 행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우리가 주님의 다가오는 왕국을 위해 기도하도록 인도하소서. 그 왕국을 우리가 인식한 제국으로 만들어 갔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스 브라우어 영 (캐나다서 연회 감독)

제 27일

2022년 5월 27일(금)



디모데전서 2:8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말씀묵상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분노와 원한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한 경험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아 서로의 관계에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과 우리를 노예로 삼는 모든 것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장소나 표현에 구애받지 않고 화냄이나 다툼이 없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음의 내적인 조건에서 오는 기도 안에서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거룩한 손은 성령에 의해 포기되고, 빚어지고, 변화된 거룩한 마음을 통해 들어 올려집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선하심과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한 손을 드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실망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 자유와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경험이나 치유가 필요한 상처가 있습니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우리 아버지, 거룩한 마음과 손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아버지의 뜻의 중심과 아버지의 임재의 능력 안에 있도록 도우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케빈 돈리 (위스콘신 연회 감독)

제 28일

2022년 5월 28일(토)



이사야 11:2

그의 위에 여호와와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말씀묵상

이 구절의 첫 번째 줄은 하나님의 보호, 임재, 평안에 대한 놀라운 그림을 보여줍니다.

삶의 환경 속에서 상처를 입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평안에 대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제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나때문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의 임재를 대표하는 목회자로서의 나의 지위를 사용하여 그의 평안을 가져오고 지혜와 조언을 제공하였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삶의 여정에서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임재로 우리를 덮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일상 생활에서 기쁨을 주실 것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분의 안식으로, 그리고 지혜와 이해와 조언과 능력의 영으로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를 덮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아버지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제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함으로서 우리 교회와 세계에 평화와 사랑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테리 암스트롱 (일리노이 연회 감독)

제 29일

2022년 5월 29일(주일)

히브리서 5:7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묵상

최근에 한 친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의 엄마가 겪었던 불안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그 엄마는 가족들이 “예, 주님, 주님의 뜻에 ‘예’라고 하겠어요”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딸은 그녀 엄마의 불안이 금세 안정이 되었고 “호스피스에 스스로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만큼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인성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히 4:15)을 이해할 수 있는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만, 그분이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의 고통스러운 기도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5:7)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길이 쉬울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실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들으심을 얻은 것 처럼 우리도 “들으심”을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주님의 성령이 저를 충만하게 하시어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제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프 컨셀만 (북서부 오하이오 연회 감독)

제30일

2022년 5월 30일(월)



예레미야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말씀묵상

타락한 세상을 사는 것의 역설 중 하나는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고의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포로로 잡혀간 삼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상황이 우리 자신의 반역으로 인해 왔든지 또는 타락한 세상에서 산 결과로 왔든지 간에 이 구절은 큰 희망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배”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든, 예레미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덧붙입니다.

“마음을 다하여”라는 문구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 것도 감추고 있지 않은 사람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대하 16:9는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자신에게 향하는 자들을 돕기 위해 찾으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말을 들을 것이고, 여러분을 건지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이 유배된 세상에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론 디위트 (동 테네시 연회 감독)

제31일

2022년 5월 31일(화)



야고보서 1: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말씀묵상

기도와 관련하여 믿음과 의심과의 치열한 투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종종 주님께서 응답하실지 궁금해 합니다. 우리의 의심은 과거의 실패, 부적절함의 감정 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면서도 진정으로 믿기 위해 자신의 의심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참조, 막 3:21; 요 7:5).

야고보는 의심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배와 같이 상충되는 생각 사이에서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의심 없이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에 대한 확고한 확신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염려거리, 관심거리, 고백거리를 신실하시고 참되신 주님께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실재성과 불변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신실한 임재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구세주와 함께 걸으며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의 기도

예수님, 주님보다 인생의 불확실성에 초점이 집중되어 있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서 충실히 순종하기로 선택합니다. 저는 주님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크 리먼 (남서부 오클라호마 연회 감독)

제 32일

2022년 6월 1일(수)

야고보서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묵상

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일반적인 기도가 도움을 청하는 부르짖음이라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과 어려운 결정에 직면하고 곤경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것이 말이 되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에 대한 가능성이 소진된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절박해집니다.

야고보의 말은 일상 생활의 자연스러운 기쁨과 고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즉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요 15:5)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과 기쁨은 우리가 인생의 여행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 더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돕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좋은 일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로의 초대는 일상 생활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행동 속에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라는 초청입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쁨 또는 슬픔이 우리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저는 오늘도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임재를 깨닫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캇 쇼 (인터마운틴 연회 감독)

제33일

2022년 6월 2일(목)

야고보서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말씀묵상

우리가 지금보다 더 분열된 시대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분열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 주실 것입니다. 장벽을 허무는 치유, 즉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화합, 일치, 열정을 가져다주는 치유를 간절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백을 하는 것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분열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능력있고 효과적인 기도의 의인이 되려면 먼저 나를 돌아보고, 죄를 깨닫고, 죄를 자백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치유를 경험해야 합니다.

나는 능력있고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치유를 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저의 이중성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베풀고자 하시는 치유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더해지는 교회로 축복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이크 키츠코 (동부미시간 연회 감독)

제 34일

2022년 6월 3일(금)



다니엘 9:18하-19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말씀묵상

우리가 개인적으로 혹은 모여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다니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보여 줍니다. 단 9:1-17을 보면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와 실패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슬픔과 후회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긍휼"(18절)만이 구원을 원하는 자신의 소망을 가능케 할 수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런 다음 19절에 큰 요구를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감사하게도,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직에 기초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찾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들으십니다. 용서하십니다. 귀를 기울이십니다.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듣고, 용서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행동하십니까?
다니엘의 답은 이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심으로 이 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성령께 저희가 민감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회개는 속히하고, 용서받는 데에 겸손하며, 아버지의 자비의 선물을
잘 간직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를 적절하게
나타내게 하옵소서.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팀 캘러만 (북동부 인디애나 연회 감독)

제 35일

2022년 6월 4일(토)



베드로전서 3:12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말씀묵상

몇 년 전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은 친구들과 호수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들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호수에서 수영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깊은 물에 빠져 갑자기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바람과 소란이 너무 심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울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즉, 그의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부모만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귀로, 그녀는 다른 모든 소음보다 그의 절박한 외침을 알아차릴 수 있었고, 큰 사랑의 손길로 즉시 그를 구출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깊은 궁핍에 처할 때 다른 모든 소음보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머리를 넘겼을 때 단순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오늘의 기도

우리는 요즘 물이 깊어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좌절의 바람이 우리 주변에 불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 주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깊은 물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발을 든든한 바위 위에 두십시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롭 송어 (중부캘리포니아 연회 감독)

성령강림절

2022년 6월 5일 (주일)



요한1서 5:14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묵상

저자 요한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바 담대함"에 대해
말하면서 이러한 확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즉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좁힙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뜻을 담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목록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갑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의 저자는
무엇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에 확신을 심어준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본문은 아버지께 나아와 겸손하게 구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아버지, 오늘 제가 아버지께 기도해야 하는 기도 목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겐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향기입니다.

오늘의 기도

아버지, 제 삶에 대한 아버지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존전에 있고 내

생각이 아버지의 영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영이 아버지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생각해 보기

여러분의 삶과 교회의 사역을 위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해 성령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크 콜린스 (캐나다 대서양 연회 감독)

“기도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확실한 수단이다.”

1760년에 존 웨슬리가 한 이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기도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공동체의 말을 경청하고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분께 우리의 모든 진심이 담긴 기쁨과 슬픔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

이 책자는 미국·캐나다 지역 교회와 여러분의 개인적 삶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모색하는 50만 기도운동에 참여해 성령강림주일까지 36일을 함께 하자고 보내는 초대장이다. 캐나다와 미국 전역의 나사렛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계시를 구하고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일에 참여하자. 회개와 종보에서 감사와 경배까지, 이 묵상집은 많은 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확실한 수단”이 될 것이다.

50만 명 기도운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앞 표지 안쪽을 참조하라.

www.usacanadaregion.org/pray

